

귀하신 몸... 한국형 씨돼지 2마리 선발

한우와 젖소에 이어 돼지도 국가가 주도하는 개량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형 씨돼지가 탄생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능력이 우수한 어미 쪽(모계) 씨돼지 2마리를 선발했다. 이번 선발은 농장(종돈장) 간의 씨돼지 능력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돼지개량 네트워크 사업의 결실로, 국내에서도 세계를 많이 낚는 어미 쪽 씨돼지를 선발하고 활용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돼지는 3품종을 교배해 생산한다. 어미는 육질과 성장률이 뛰어난 '두록' 품종을, 어미는 새끼 수와 젖 먹이는 능력(포유능력)이 뛰어난 '요크셔'와 '랜드레이스' 품종

농촌진흥청, 돼지개량 네트워크 사업 성과 새끼 1.58마리 더 낳을 수 있어 번식능력 우수

이 쓰인다. 이번에 선발된 씨돼지 2마리는 '요크셔' 품종으로 새끼 수(생존산자수) 평균이 17.5마리이다. 또한, 육종가(유전능력)는 1.58마리로 일반 돼지의 평균보다 유전적으로 새끼를 1.58마리 더 낳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씨돼지는 앞으로 돼지인공 수정센터(해군시센터)에 들어가 정액을 생산함으로써 돼지개량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농장 간 교배에 활용할 예정이다. 돼지 개량 네트워크 사업은 씨돼지농장의 좋은 씨돼지를 선발·공

유·평가해 유전적 연결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한국형 씨돼지를 개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은 사업 관리와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를,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사업의 추진과 능력검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19개 씨돼지농장(종돈장)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3곳의 돼지인공수정센터(해군시센터)를 운영 중이다. 여러 농장에서 같은 씨돼지를 사용하면 혈통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이들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해외에서 씨돼지를 들여오지 않고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돼지육종을 지속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김시중 기축개량평가과장은 "여러 농장의 씨돼지 능력을 서로 비교하게 됨으로써 수입 씨돼지에 맞설 수 있는 씨돼지 개량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종축개량협회 김성수 종돈개량부장은 "우리나라 여러 종돈장이 사업에 적극 동참해 준 덕분에 유전능력에 근거한 어미돼지 선발이 가능할 수 있었다"며 씨돼지농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10월에는 어미 쪽(부계)과 어미 쪽(모계) 씨돼지를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도내 코스피·코스닥 '명암차'

유가증권 상장기업 매출액 ↑ 코스닥 시장 기업은 큰 폭 ↓

유가시장에 상장된 전북지역 법인의 상반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감소속에서 영업이익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9개사는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21일 발표한 '전북지역 상장법인 반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반기 총 매출액은 7,2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3% 감소했다. 매출액 감소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472억원에서 393억원을 기록해 큰폭으로 줄었다. 미원애스씨와 페이퍼코리아의 매출액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무안정성의 경우 부채비율은 지난 2016년말 대비 1.41% 낮아진 56.95%를 기록했으며 전국평균(110.97%) 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8개사 중 일진머티리얼즈와 광전자, 백광산업 등 7개사가 흑자를 시현한 반면, 페이퍼코리아는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9개사의 반기 총매출액은 7,1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6%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528억원, 순이익은 5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77%, 266.38% 큰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하림의 매출액은 4,475억원으로 전년 동기(3,667억원)에 비해 큰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코스닥 기업의 부채비율은 2016년말 대비 6.29%p 높아진 50.02%를 기록, 전국평균(61.04%)에 비해 낮고, 우노엔컴퍼니와 네패스신소재 등 2개사는 적자를 시현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원예농협은 올 해 첫 수확한 배 60톤(15kg 및 10kg, 3,500상자)이 지난 18일 베트남 및 대만 수출 길에 오른 가운데 직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원예농협 햇배, 아시아인 입맛 정조준

베트남·대만 수출길 올라 내년 4월까지 500여톤 목표 수출시장 다변화 전력 질주

전주원예농협은 올 해 첫 수확한 배 60톤(15kg 및 10kg, 3,500상자)이 지난 18일 베트남 및 대만 수출 길에 올랐다. 이번에 수출길에 오른 햇배는 전주,

완주 인근에서 재배한 것으로 APC센터에서 집하해 선도를 선별했고 엄격한 검역검사를 거쳐 이번 수출을 통해 아시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전주원예농협은 내년 4월까지 대만, 베트남, 홍콩 등으로 500여톤 수출량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전북 농산물 수출 실적 및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수출시장을 다변화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다. 김우철 전주원예농협 조합장은 "올 해 배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해외시장 흥부활동 및 수출확대를 통해 국내시장 가격을 지지하고 전주, 완주 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수출시장을 확대해 배 생산농가의 농산물이 재값을 받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농어촌공 전북 4일간 2017 을지연습 돌입

전북농협은 경제지주, NH농협은행과 합동으로 21일 오전 5시 50분 전 직원 대상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비상대비 태세확립 2017 을지연습에 돌입했다. 전북농협은 2017 을지연습을 통해 농협 소관분야의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비상시 전환절차 숙달과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실제훈련실시 등 비상대비 연습을 21일부터 4일간 실시한다. 이번 을지훈련에서 전북농협은 2017 국가 비상사태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농협 소관분야의 각종 지원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전북농협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환절차 숙달과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화재진압훈련 등을 진행한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도 21일부터 23까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비상대비 훈련인 '2017 을지연습 훈련'을 실시한다. 전북본부는 이번 을지훈련을 통해 전경과 테러 발생시, 발생 가능한 공사의 위기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배양하고 을지연습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과 공감대를 형성해 범정부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안보의식과 비상시 행동요령 인지도를 제고시켜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팔견어'

전북 생진원, 공장 현장방문 생산기술·판로개척 컨설팅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지난 18일 농업회사법인 '한국오가닉' 전주공장을 방문해 제품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창업기업의 생산기술 및 생로개척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15년 8월에 설립된 한국오가닉은 진흥원에서 주관한 2016년 창업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하고 제조기술과 인적역량 강화를 통해 일본시장 현지에 맞는 마케팅 및 제품의 고급화에 집중하여 수출판로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이다. 식물성 오메가3가 60% 이상 함유된

국내산 100% 생들기름을 생산하고 있는 이 기업은 최근 제품의 유통상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품용기 관련 특허 3건을 취득하고, 해외수출을 본격화해 올해에는 전년도의 10배인 매출 4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진원은 이 기업에 일본시장 현지에 맞는 제품의 패키지 현지화 및 생들기름의 제조과정 중 침전 및 이물 제거를 위한 공정개선을 통해 품질관리 및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수 원장은 "생산현장의 위생관리 강화와 공정의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며 "기업현장 애로 침투를 통해 창업·영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진흥원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시제품제작소, 가족단위 메이커교육 성료

전북시제품제작소는 지난 19일 가족 모두가 참여해 보드게임을 셀프 제작하는 메이커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메이커교육은 전북시제품제작소 1인 제조 장비를 활용한 셀프 제작 교육의 일환으로 레이저커팅기를 주 사용하며 보드게임을 직접 만드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의 가족단위 참여자는 "교육을 통해 다소 대화가 부족했던 가족들과 무언가를 함께 만드는 것만으로도 참 좋았지만 필요한 것을 1인 제조

장비를 사용하여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사실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전북시제품제작소 DIY 메이커 교육은 메이커가 아니더라도 메이커 분야에 접목하여 활용할 예비 창업자 및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전북시제품제작소 가족단위 메이커교육은 오는 26일에도 개최될 예정이며,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전북시제품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 지원된다. /안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